



VBS 주제해설



유튜브, 게임, 웹툰, 모바일 메신저. 오늘날 다음세대가 숨 쉬며 살아가는 또 하나의 세상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접하는 가치관에 완전히 젖어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우리의 다음세대는 어떨습니까? 외관상 그리스도인이지만 내면과 행동방식은 믿지 않는 어린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픈 현실입니다.

착한 도깨비와 불쌍한 귀신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에게까지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신비 아파트’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주인공 남매가 도깨비 캐릭터와 힘을 합쳐 귀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원한이 풀린 귀신은 승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청하는 아이들은 처음에는 무섭고 어색했을지 몰라도 시간이 갈수록 캐릭터들에 애정을 쏟습니다. 도깨비를 ‘우리를 지켜주는 착한 존재’로 여겨 친밀감을 느끼고, 귀신은 ‘사연이 있는 불쌍하고 선한 존재’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집니다.

가장 좋아하는 장르인 ‘만화’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더 마음을 열고 ‘착한 도깨비와 불쌍한 귀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어른들 또한 만화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도깨비 인형이 달린 가방을 사주고, 도깨비 캐릭터가 그려진 카드를 사주고, 스마트폰에 게임을 깔아줍니다. 이때는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구분이 따로 없습니다. 유행처럼 번진 이 만화를 통해 도깨비는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문화’가 되었습니다.

LOVE YOUR SELF (러브 유어셀프)

대중 음악계를 넘어서 하나의 세계를 구축한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10대와 20대가 겪는 삶, 사랑, 사회의 강요와 부조리를 자신들의 시각과 에너지로 세련되게 표현합니다. 참으로 뛰어난 예술성을 갖고 있습니다. 외신들도 앞다퉈 BTS를 높이 평가합니다. “21세기 비틀즈이자, 전 세계 음악계에서 가장 큰 존재(영국 공영방송 BBC).” “세계 음악 시장을 바꿨다. 꼭 영어로 된 가사가 아니어도 좋은 음악에 미국이 눈과 귀를 열게 했다(미국 민영방송 CNN).” 전 세계 팬들은 BTS의 노래를 한국말로 따라 부르며 뜻을 파악하기 위해 한글을 배웁니다. 2019년 2월 기준 미국 빌보드 차트 7개월 연속 진입, MTV 유럽 뮤직 어워드 수상 등 각종 기록을 계속 경신하며 엄청난 인기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Love yourself(러브 유어셀프).” BTS가 2018년 뉴욕 유엔 총회에서 한 연설의 주제입니다. 이 연설은 미국 ABC 뉴스에서 생중계할 만큼 큰 화제였습니다. ‘네 이름을 찾아라, 찾았다면 이제 스스로 너 자신을 나타내라!’는 진솔한 외침은 미국 교육 현장에 까지 큰 반향을 낳았고, 수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달했습니다. “Love yourself”는 BTS의 앨범 이름이기도 하고 전 세계 투어 공연 타이틀로도 사용된, 현재 BTS의 아이덴티티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Love yourself(자신을 사랑하라)’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Love one another(이웃을 사랑하라)’를 강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자아실현’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면, 성경에서는 ‘자기희생’이 최고의 가치를 지닙니다. ‘자기사랑’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세상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우상’입니다. ‘너 자신이 네 인생의 주인’이라는 메시지, ‘이 세상에는 정해진 목적이나 의미는 없으며 삶의 의미는 각자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것’이라는 메시지는 결국 에덴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건넨 유혹을 생각나게 합니다.

‘좋아요’와 ‘하트’의 개수

사실 ‘네가 최고다’, ‘행복은 네 안에 있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는 메시지는 요즘 대중문화에서 가장 많이 전해지는 메시지입니다. 오히려 BTS라는 매력적인 메신저가 말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더 특별하게 다가온 것일 수 있습니다. 청장년층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사이에서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등에 자기 사진이나 동영상상을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놀이이자 문화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는 그 행위 자체가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SNS에 올린 자기 사진과 동영상이 본인에게 주는 ‘보이지 않는 만족감’은 타인으로부터 획득하여 ‘눈에 보이는’ 좋아요(페이스북)와 하트(인스타그램, 틱톡)의 개수에 의존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너는 너대로 살아라’라고 말하는 문화 속에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이 타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팀 켈러(Timothy J. Keller, 미국의 목사, 신학자 및 기독교 변증가)는

“세속 문화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음으로써 정체성을 확립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존재를 다른 사람에게 입증하라고 하죠. 이는 타인의 인정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기에 인간을 심각할 정도로 연약하게 만듭니다. 사실상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라고 경고합니다.

[출처] 팀 켈러의 Google강연
ideas worth spreading FOR CHURCH <https://youtu.be/8Nk-e1C17mM>





문화의 옷을 입고 있는 세계관

바울의 전도 여행 당시 사람들이 섬긴 제우스, 헤르메스 등 아테네의 신들은 종교가 아닌 문화였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뚜렷한 개성은 신이 캐릭터화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형식으로 전달되는 ‘신(god) 캐릭터’는 신이 어려운 존재라는 인식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무너뜨리고 친근하고 재미있고 흥미로운 존재로 받아들여지게 했습니다. 유행처럼 번진 신화는 문화가 되어 모든 사람 속에 존재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견지 못하는 사람을 견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자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하고 경배하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합니다(행 14:8-18). 아테네 도착한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우상까지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에 격분하고, 종교심이 많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와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 설명합니다(행 17:16-34). 3년 동안 사역한 에베소에서는 대조되는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합니다(행 1:17-41).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한 마술사들은 갖고 있던 값비싼 마술책을 불태웁니다. 반면에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판매하는 은장색들은 복음의 전파로 그들의 수입이 크게 줄어들게 되자 폭동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생각 심기 : 성경적 세계관

현세대의 문화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며 마주친 현장과 유사합니다. 도깨비와 귀신을 착하고 불쌍한 존재로 여기는 것은 잡신의 정체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종교로 신봉하려는 행태입니다. ‘자기 사랑’ 슬로건은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먼저 발견하고 그 이름을 섬기기보다는 먼저 자기를 찾고 자기를 우상화하려는 움직임의 시발점입니다. 좋아요와 하트 개수에 집착하는 것은 타인의 시선과 평가라는 우상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이 현상을 ‘문화의 옷을 입은 세계관’ 차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잘못된 세계관은 세상에 대한 왜곡된 상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는 데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는 우리 아이들에게 대중문화의 메시지와 그 속에 감춰진 세계관을 경계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말 안에는 이미 성경이 올바른 세계관의 기초이자 전부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견지한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세상과 인간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최상이자 유일한 인생의 목표와 목적으로 삼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적 근거에 의해 형성된 올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교회에서 배우고, 일상에서 실천되면서 세워져 가고 점점 힘을 얻어 주위 영역에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학교, 위대한 여행으로 태그(#) GOD

어떻게 하면 다음세대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세상의 세계관을 넘어서 이기도록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낸 인물을 깊이 조명하여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 인물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1차원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평생토록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전도자입니다. 그러나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는 전도자이기 전에 거대한 철옹성과 같은 유대교 세계관, 헬레니즘 세계관, 다신론적 세계관, 배금주의 세계관과 치열하게 부딪치고 싸우며 성경적 세계관을 실천해 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바울의 세계관 전쟁을 오늘날 다음세대의 생활과 연결하여 배우게 될 이번 성경학교는 우리 다음세대가 올바른 세계관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과 용기를 가질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여행’을 마치게 되면 하나님(GOD)이 그들의 삶에 태그(#)되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이 위대한 여행에 동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함께 떠납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1) 웹에서 주로 사용되는 #(tag, 태그)는 ‘콘텐츠의 내용을 대표하는 키워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SNS에 책 사진을 올린 후 ‘#카페’라고 적었다면 이 사진의 키워드는 ‘카페’가 됩니다.

